



1989. 6. 10 稿

§. \_\_\_\_\_

# 宋相現

No. 1

内閣责任制을 다시 생각한다  
최근 어느政黨의 代表가 内閣责任制  
改憲을 주제로 한 의향을 밝힌 바 있다.  
政治圈 안팎에서도 이에 대하여 나름 대  
로의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이같은 詮  
言이 현재 改局 최대의 隱案인 五共清  
算 문제를 염두하고 국민의 관심을 다  
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底意를 가지고  
불쑥 해본 노리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  
하는 行為로서 비단 뿐만 아니라 그

(20×10)

(20×10)

국민들의 즐기祉 특쟁의 결과 실로 16  
 년만에 내 손으로 뽑은 政府가 미처  
 스스로의 公約과 施策을 펴보기도 전에  
 그 政府形態의 废更을 구재촉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도 곤란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근 30년  
 전에 失敗해온 政治의 実驗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서今 裂로 치닫는 政局의  
 將來를 收斂할수 있는 政治的 制度를  
 곰곰 생각해보야 할 것 같다.

(20×10)


(20×10)

建國 당시 内閣責任制 위주의 寶祚草案  
 이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지고 李承晚  
 사가 大統領制 权力構造上에서 長期獨裁  
 를 하다가退出되자 그의 独善과 老態  
 을 비난하는 일방 大統領制야말로 평면  
 적으로 权力集中을 통한 獨裁를 가져오  
 는 듯을 政府形態인양 罷倒하는 論議가  
 무성했고. 이는 당시 국민들이 반사회  
 으로 内閣責任제에 대한 막연한期待와  
 憧憬이 깊음을 의미한다. 자유의 이름

(20×10)


(20×10)

으로 일어선 점은 이들뿐 아니라 아니고 국면  
 들도 内閣責任制야 말로 民主主義를 위한  
 先決要素이자 政治的 萬病通治藥으로 생  
 각하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의 不  
 備와 政治的 訓練의 不足 등으로 말미암  
 아 地方自治制 丙院制 千選舉區制와 함께  
 깨試圖해보았다 内閣責任제는 5·16 쿠데  
 타로 연하여 불과 9개월만에夭折하는  
 운명을嚮했다. 뿐만 아니라 그후의  
 執權勢力은 그들의 지도자 한 사람의 体

(20×10)


(20×10)

格에 맞게 洋服을 截斷하듯 穿요한 때  
 민主 改變을 하여 大統領 一人의 权力  
 集中의 길을 걸어왔다. 동시에 그들은  
 民主黨政府의 능력과 内閣責任制 政府形  
 態의 脆弱桌而 一方的으로 弘報하여 名  
 미을 洗滌하여 왔다 것이다. 그러면 오  
 늘의 狀況은 그때에 비하여 어떠한가.  
 30년전과 오늘 날을 냉정하게 비교하여  
 볼 때 지금도 内閣責任制를 제대로 운  
 영하는데 필요한 理論的 實際的 前提要

(20×10)


(20×10)

件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보기는 어렵다.  
 政黨政治의 現在所는 兩黨制가 아니 而  
 單制로 移行되어 特定人物을 중심으로  
 한 派黨政治의 次元을 극복하기도 늦한  
 채 利害關係에 따른 雜合集散을 거듭하  
 고 있고, 밀비당에서부터 民意를 收斂함  
 수 있는 채널로서의 地方自治는 아직  
 実施조차 되지도 늦하고 있는 혼편이다.  
 内閣責任制는 議院內閣제인지만 民意  
 를 대유하는 국회가 국政의 中心卓이다

(20×10)


(20×10)

2012-2-27 일정

8.

No. 7

되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본래  
대로 운영될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國會議員  
選舉를 거듭할 때마다 識見과 使命感과  
道徳性과 資質의 면에서 穷性遺伝을 비  
복해온 것이 우리 국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의 말과  
진 점도 있다. 우선 지난 40여년간  
마치 건강에 유익히 시경쓰는 사람이  
몸에 좋다는 飲食과 補藥을 다치는 대로  
매어치우듯이 우리는先進국의 그런 듯한 政治制

(20×10)

(20×10)

彼는 모두導入하여 実験을 해보았고  
民主憲政의 짙은 漸絕 속에서도 상당한  
政治的 訓練과 經驗을 쌓아왔다. 좀마  
지 地球村 각지에서 일어나는 國家經營  
의 事例에 曲屈이 接하는 동안 그  
意識도 많이 成熟해왔다. 꽤 有識해지  
고 内明해졌고나 할까. 또한 어느정  
도 経済發展을 이루는 이마당에 어느  
훌륭한 尊者故 분의 리더십에 대처  
高達成長등을 발휘로 한 能率的 体系의

(20×10)

水滸傳  
多情女

(20 × 10)

獨一的統治는 이미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고 국제의 원칙도 아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제2차 大世界戰 이후에 構築된 军事的 이데으로 기의  
 冷戰体制가 각국의 理念을 초월한 經濟  
 実利追求로 인하여 붕괴되어버리고  
 있고 이러한 국제動向은 점차 半島內  
 的 状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우리나라 주변의 情勢變化  
 가 北韓獨裁集團에 대한 우리의 安保上

(20×10)


(20×10)

경각심을 늦출 理由로 되지는 아니하지  
 만 그렇다고 하여 과거와 같이 内閣責  
 任制의 政府形態로서는 政局安定을 도모  
 할수 須근데가 또는 国家非常時 效果的  
 으로 대처할수 須근데 과거의 論理는  
 得力を 삼설했고 보여지고.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오랫동안  
 며양되었다 名譽名譽의 欲求가 無限大로  
 분출되고 있는 現時况에서 다양한 목소  
 리를 調整하고妥協하여 国家意思決定을

(20×10)


(20×10)

한에는 大統領 中心制의 支力構造가 갖는  
 非彈力性이 자주 나타나고, 地域에  
 따라 달리고 階層向에 欲求가 다르며 理  
 念上의 反射角과 反射강이 類似성이 넓고  
 양쪽 양쪽 해지 <sup>오늘날</sup> 深化된 강등과 침여해지  
 이 해외계의 치우침 <sup>制外圈으로 끌어들여 대응</sup> 이내와 대화를 통해  
 여 攻服해갈수 있는 政治技術이 더러워  
 필요해졌음을 否認할 수 있다. 이  
 외 같은 政治技術이 좀더 잘 発揮될수  
 있는 정치적 틀이 <sup>바로</sup> 内閣责任制하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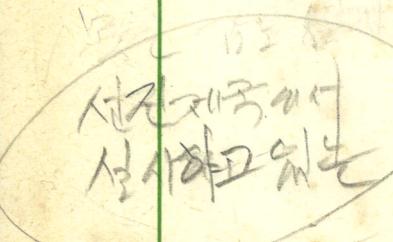
(20×10)


(20×10)

한다. 여기는 여름이다.

歷史는 퍼풀이 되고는 말고 같이 또다시 쳤아온 民主化的 執權을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아니하도록 全國民이 같이 苦惱하고 努力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사람마다 주장하는 穩先順位가 다르겠으나 多樣한 主義主張을 政治的으로 容할수 있기 위하여서는 内閣責任制의 尊入과 이의 成功的 達成을 위한 基礎条件들에 대해서는 시찰해야 할것이다.

(20×10)



(20×10)